읍면동 순회교육·의료관련 서비스 제공

군산시, '의료급여 사업 평가' 전북도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시가 '2017년 의료급여 사업 평가'에서 전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 전북도는 매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 한해 의료이용증감률, 장기입원 사례관리 실적, 전체수급권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실적 등 의료급여 사업 전반에 걸친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비롯해 의료급여 사업 안내문을 지역내 1,500가구에 배포하고, 지속적인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으며, 이에 전년대비 52%인 약 16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거둠으로써 전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집중관리 40명, 고위험군 296명, 장기입원자 147명, 신규수급자 1,200명 등 총 1,683명의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상담과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는 등 의료급여 관련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시가 의료급여비 누수 예방과 건전한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해 온 다양한 노력들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확대와 예산절감으로 의료급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들에게 꾸준히 의료급여 사업을 홍보한 결과, 의료기관의 중복청구 310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대상자 83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4,800여만을 회수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 내실화와 올바른 약물복용법 지도, 자가 건강생활 실천으로 의료비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원도심 지역 대상 지역역량강화사업

익산시, 올해 성공적 마무리

주민들 적극적인 참여·지속적인 소통

익산시가 중앙동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1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앙동 원도심 지역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1년 차인 올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세웠다.

특히 시는 원광대 학생들, 도시재생 주민공동협의체 및 시민조사원을 활용하여 100년 철도 역사를 주제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자료집을 완료하고 이달 내에 발간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8월 10일~9월 28일까지 8주간 주민역량강화 강연을 통해 주민리더를 양성하고 수료식을 갖고 수료증을 전달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층 유입 방안으로 청년 푸드트럭을 11월 17, 18, 23, 24일 4일간 '별밤야태' 푸드트럭을 주변 상가 및 상인회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

시 관계자는 "2017년의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바탕으로 2018년 2년차 사업으로 마을활동가 운영과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선진지 견학, 각종 홍보를 통해 지속적이고 주민주도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자생적인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K뷰티대중문화예술제 부분별 대상 수상

뷰티패션직업전문학교 '유명세'

뷰티패션중앙직업전문학교(학교장 서순애)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최근 서울특별시 양재동 서울호텔 더 케 그랜그볼룸에서 열린 K뷰티대중문화예술제에서 부분별 대상을 받았다.

학교의 기술전수와 교육시스템 등이 유명하기로 알려진 뷰티패션중앙직업전문학교는 '헤어기초과정, 피부미용기능사취득, 네일아트과정, 의류봉제 및 소품 제작실무 및 봉제기초구직자과정' 등의 정부지원 국비(무료)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매월 80%이상 출석시 40만원 차등지급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에 많은 훈련교육생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열린 대회에서 서순애 뷰티패션중앙직업전문학교장이 감사장을 수상받았고 김용제 군이 일반고 특화미용사일반과정 부분에서 대상 그랑프리, 최재혁 씨가 컨슈머부분에서 대상의 영예와 함께 부상 일본왕복티켓, 김정환 씨가 헤어기초과정 훈련생 와인딩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서순애 학교장은 이날 열린 경연대회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최근의 한류열풍은 우리 문화산업이 또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게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 대회는 총 15개 아시아 국가에서 참여한 아시아 미용인의 축제의 장으로서 우리 미용뷰티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또한 아시아의 미용뷰티산업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전북지역 지원민방위 경진대회 군산서 열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군산시 성산면에 소재한 리버힐 관광호텔에서 전북도 주관으로 전북지역 지원민방위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지역민방위 경진대회는 국가 비상사태나 대규모 재난 시 주민대피, 현장수습, 복구 지원을 위한 지원민방위대원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시민들의 안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경진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전라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14개 시·군 지원민방위대원과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시·군별로 출전한 지원민방위대원들의 부상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 등 3개 종목에 대한 경진대회와 자연재난 교육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42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민방위가 미래 대한민국의 100년을 열어가는 핵심 주체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전북도가 주관한 이번 교육 및 경진대회는 지원민방위대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방위대 임무 및 역할 숙지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공무원 및 지원 민방위대원들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원민방위대가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금마농협, 새로운 도약·발전 다짐 비번선포식

금마농협은 지난달 30일에 있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체 대의원을 모시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다짐하는 비전선포식을 갖었다.

금마농협 비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실시한 종합컨설팅에서 조합원과 임직원이 힘을 합쳐 함께 이루어 나갈 목표를 슬로건화 하여 비전을 수립한 내용으로 비전은 농심소통! 고객감동! 함께하는 금마농협! 이다.

비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농협과 농업인, 조합원이 하나가 되기 위해 항상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불신의 벽을 허물어 고객과 함께하는 최고농협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

C·S 3.0실천으로 고객서비스 1등실현, 연체비율 제로화로 클린뱅크 실현, 상호금융대상평가 대그룹 1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종합컨설팅우수사무소 선정과 관련한 표창패 전달 및 종합컨설팅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이 되었으며, 이날 백낙진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종합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통해 경영내실화를 기하고 작지만 강한농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축하행사 성료

지난 3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성화가 군산을 찾아 뜨겁게 타오르며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모인 가운데 축하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축하행사에는 개막을 알리는 태평소, 대북 퍼포먼스와 국가대표가 참여한 에어로빅 공연, 어린이이들과 함께 만들어낸 창작무용 등을 선보여 행사장에 모인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군산에서의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군산시청 조정팀 8명과 공개로 모집한 일반시민 66명 등 총 74명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혜당약국을 출발해 근대역사박물관까지 총 20.2km 구간을 달리며 구간마다 응원을 나온 군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을 찾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를 많은 분들과 함께 환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군산시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는 지난달 28일 남원을 시작으로 임실, 무주, 전주, 익산을 거쳐 군산을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일정을 마무리하고 충남 부여로 이동하며, 경상도와 경기도, 서울을 거쳐 2월 9일까지 101일간의 여정을 이어가게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어린이 맘껏 광장 조성사업 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공동 조성하는 전국 최초 어린이 맘껏(권리)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정회상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장, 박성현재경군산시향우회장,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군산시립도서관 옆 수송근린공원에 6억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형태로 조성하는 어린이 맘껏광장은 공공시설에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현장 분석, 어린이 참여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대표하고 표현하며 우리를 비추어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구상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린이 맘껏광장은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고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되도록 어린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권리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